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시마네 이모저모

Vol. 49

세계유산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역사를 배운다! 영어 가이드 투어
이와미은광의 주민들은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무사의 저택에서 식사해보실래요?
역사의 기억 - 이와미은광의 칸텔라

「世界遺産の町に生きる人たち」

歴史を学ぶ！英語ガイドツアー！
石見銀山の住民は故郷を誇りに思う！
武家屋敷で食事してみませんか？
歴史の記憶 - 石見銀山のカンテラ



歴史を学ぶ! 英語ガイドツアー

역사를 배운다! 영어 가이드 투어

데미안 크레이그

한겨울 아침에 간간히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역사의 일부이며 숲과 산에 둘러싸인 오모리초(大森町)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림같은 마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스팔트 도로와 진신주, 전통 가옥과 돌다리 등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대비가 느껴졌습니다.

‘이와미은광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은 오모리초를 비롯해서 650여개의 마부와 가도, 성터, 항구까지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와미은광은 당시 유럽의 지도에도 실린, 1526년에서 1934년까지 조업한 대규모 광산입니다.

“Hello, my name is Mie Hata.”라며 유창한 영어로 한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타 미에(畑美恵) 씨는 영어로 이와미은광을 무료 안내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원인데 우리를 안내해주었습니다. 소개가 끝나자 센노야마(仙ノ山)에 있는 마부까지 걷는 2.3km의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Q: 하타 씨는 왜 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하셨습니까?

A: 저는 효고현(兵庫県) 출신인데 10년 전에 오다시(大田市)로 이사왔습니다. 집은 이곳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원래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지금은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어 가이드 연수에 참가했는데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와미은광 자원봉사 영어 가이드회’라는 단체로 지금은 멤버가 8명입니다. 저는 시작한 지 5년 되었습니다. 매년 3-4건 정도 가이드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 횟수를 늘리고 싶습니다.

Japanese

歴史を学ぶ! 英語ガイドツアー!

わずかな雪が降る中、真冬の朝に森と山に囲まれた歴史の一部である大森町に到着しました。駐車場から生きている絵のような町並みが目に入りました。アスファルトの道路や電柱と伝統的な家や石の橋という古い物と新しい物のコントラストに気がきました。

「石見銀山跡とその文化的景観」は大森町と約650のまぶ間歩、街道、城跡、港なども含まれ、世界遺産として登録されています。当時のヨーロッパの地図にも載っている、1526年から1934年まで作業された大規模な鉱山です。

「Hello, my name is Mie Hata」と流暢な英語で話しかける女性がやってきました。はた畑みえ美恵さんは石見銀山を英語で無料のツアーするボランティア団体のメンバーの一人で、私たちのガイドをしてくださいました。紹介が終わると、仙ノ山の間歩へ2.3キロの散歩を始めました。

Q:畑さんはどうしてそのボランティア団体に入ろうと思いましたか?

A:私は兵庫県出身で、10年前に大田市に引っ越ししてきました。家はここから、車で20分かかるところにあります。元々中学校で英語教師をやっていたが、

今は英語の塾をしています。ある日、英語ガイドの研修に参加して、面白いと思ったので、団体に入ったわけです。「石見銀山ボランティア英語ガイドの会」と言って、今は8人のメンバーがいます。私は始めてから、5年目です。毎年、3~4件ぐらいガイドの要望がありますが、その回数を増や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Q:ツアーの様子を少し説明してください。

A:大体2時間半の間で、石見銀山の歴史、作業方法等を説明しながら、一緒に間歩まで歩いて、間歩を見て戻ってきます。事前予約は必要なのですが、1年に1回ぐらい、突然ツアーしたいというお客さんが来ます。

Q:将来の夢を教えてください。

A:外国の観光客に石見銀山を楽しんでほしいです。そして、色々な国の人に会いたいです。最終的にボランティアの人数を増や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間歩に入るとなんと外より暖かい5℃!人の手で掘った間歩を自分の目で見



시마네 이모저모

Q: 투어에 대해 잠시 설명해주시지요.

A: 대체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며 이와미은광의 역사, 작업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함께 마부까지 견고 마부를 본 후 돌아옵니다. 사전예약이 필요한데 1년에 한 번 정도 잡자기 투어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Q: 앞으로 이 투어에 바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A: 외국 관광객들이 이와미은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인원을 늘리고 싶습니다.

마부에 들어가자, 이럴수가! 바깥보다 따뜻한 영상 5℃였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판 마부를 직접 보니 인간의 진정한 힘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하타 씨와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던니 금세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만여명이 살았던 오모리초에는 현재 겨우 4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고 나서 매년 방문하는 80만 명의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레스토랑과 카페, 선물가게, 숙박시설 등이 생겼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가이드가



英語

있어서 이 마을과 광산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같습니다. 역사의 마을, 오모리초를 하타 씨와 함께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歴史を学ぶ! アイドゥン!

Japanese

日本語

と人間の本当の力を改めて感じました。帰り道に畑さんと普通の会話をしながら、歩いていたら、あっという間に駐車場に戻りました。

昔は約1万人もいた人口ですが、現在、大森町にたった400人が住んでいます。しかし、2007年に世界遺産に登録されてから、毎年訪問する80万人の観光客のニーズに合わせるため、様々なレストラン、カフェ、お土産屋さんや宿泊施設などができました。やさしく説明してくれるガイドがあるので、この街や鉱山のことがより深く理解できたと思います。歴史の町、大森町を畑さんと一緒に歩きませんか?



이와미은광의 주민들은 고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타치아나 크라피비나

17세기 초에 일본은 전세계 은의 1/3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와미은을 생산한 오다시(大田市)의 오모리초(大森町)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수 만 명이 살던 오모리초는 휴광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 현재 인구는 약 400여명입니다.

의수족과 보조기 등을 제작하는 '나카무라 브레이스'의 나카무라 도시로(中村俊郎) 사장님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 공장으로 보이지 않고 거리의 풍경에 녹아든 나카무라 브레이스의 건물 안에서는 활기차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방에서 상지 보조기, 하지 보조기, 코르셋, 메디컬 아트인 인공 유방, 귀 등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사장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상장과 상패가 벽이 안 보일 정도로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교토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의수와 의족, 보조기 제작에 관한 연수 및 유학을 하고 의지장구사(義肢装具士) 자격을 취득한 나카무라 사장님이 태어나고 자라난 오다시 오모리초로 돌아와 이 작은 마을에서 회사를 세운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사적의 마을, 이와미은광에 대한 자긍심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 Japanese

石見銀山の住民は故郷を誇りに思う!

17世紀の始めに日本は世界の銀の1/3を産出したとも推定されるが、そのかなりの部分を占めていた石見銀を産出した大田市の大森町を訪問しました。当時数万人が住んでいた大森の地は休山の結果人口が減り、現在400人に留まります。

その中の一人は義肢装具を製作する「中村ブレイス」の中村俊郎(なかむらとしろう)社長です。外からは工場に見えない、街並みに合わせた中村ブレイスの建物の中で活気のある仕事が進められています。それぞれの部屋で上肢装具、足装具、コルセット、メディカルアートである人工乳房、耳等が製作されています。そして、中村社長のオフィスに入ってみると、壁が見えない程、様々な賞状や盾が並んでいます。

京都と米国カリフォルニア州での義肢装具製作の研修・留学を行い、義肢装具士の資格を取得された中村社長は生まれ育った大田市大森町に帰られ、その小さな町で会社を起こすことにされた理由について聞いてみました。

史跡の町「石見銀山」の誇りは子供の時にお父さんから伝わりました。その時から、自分も豊かな歴史のある地域にどうにかして貢献したいという気持ちがわ

タチアナ・クラピヴィナ

いてきたそうです。そのため、日本内と国外で様々な知識と経験を重ね、京都府、大阪府ではなく、どんなに田舎であっても、自分の故郷である大森町で会社を一人で起業されたそうです。1974年のことでした。

県外から専門家を誘い、現地の人々にもパートタイムの仕事をしてもらい、職員の力で義肢装具、医療器具の開発をされました。その中、会社のオリジナル製品になったシリコンゴム製のインソールを開発し、日本と外国で特許を取り、37カ国で販売されています。日本国内の医療機関・義肢装具製作会社、さらに海外の多くの国々とも交流するまでに成長することが出来たそうです。このように「石見銀山」再生の一助になればと、社員と一緒に努力を続けてこられました。

中村社長は、写真を見せながら、「40年前の大森町を見て下さい。老朽化した家ばかりです。ここで生まれた人間の気持ちを還元したいと思いながら、自力で家を修復し始めました。現在40軒目を修復しているところです。そして、中村ブレイスのお客さんと石見銀山の観光客が使用できるゲストハウスも建設しました。故郷の町は益々元気になり、自分が少しでも町のために貢献出来たことをどんなに幸せに思っているかということは、表現しきれません」。

시마네 이모저모



물려받았고 그때부터 자신도 역사가 살아있는 이 지역에 어떤 식으로든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해외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후, 교토나 오사카가 아니라 비록 시골일지라도 고향인 오모리초에서 혼자 힘으로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1974년의 일이었습니다.

현(県)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왔고 현지민들에게 시간제 일을 맡겼으며 직원들의 힘으로 의수와 의족, 보조기 등과 의료기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회사의 독창적인 제품인 실리콘 고무제 구두 깔창을 개발하여 일본과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해 37개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의료기관, 의수족 및 보조기 제작회사, 더 나아가 해외 여러나라와 교류하는 데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카무라 사장님은 이와미은광을 다시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사원들과 함께 노력해오셨습니다.

나카무라 사장님은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의 오모리초를 보십시오. 노후화된 집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자력으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40번째 집을 수리 중입니다. 또한 나카무라 브레이크에 찾아오는 손님들과 이와미은광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지었습니다. 고향 마을은 점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작게나마 마을을 위해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기쁘지 말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Q: 앞으로의 꿈은 무엇입니까?

A: “저희 회사는 이미 6천 명을 위해 개인 의수와 의족, 보조기 등을 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꿈은 맞춤형 의수족 및 보조기 제작을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Q: 나카무라 컬렉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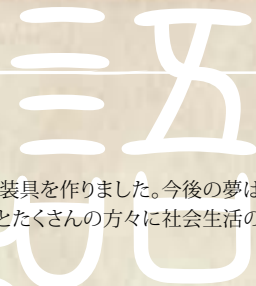
A: “이와미은광과 관련된 자료, 두루말이, 고지도, 세키슈 은화(石州銀)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미은광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젊은 세대에게 참고가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이와미은광 그 문화적 경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다 5주년을 맞이하여 수집한 자료를 한편의 책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이와미은광 지역과 고향인 오모리초를 자랑스러워하는 나카무라 사장님의 마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후에는 손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나카무라 사장님께서 점심을 사주셨습니다. 나카무라 사장님! 즐거운 인터뷰와 맛있는 점심, 감사했습니다.



故郷石見の山
を銀の山
の住人は
思う!
は

Japanese



Q: 今後の夢はなんですか。

A: 「会社は既に6千人のために個人義肢装具を作りました。今後の夢は個人に合わせた義肢装具の製作を増やし、もっとたくさんの方々に社会生活の幸せを感じてもらおうことです。」

Q: 中村コレクションについて一言をお願いします。

A: 「石見銀山に関係する資料、絵巻、古地図、石州(せきしゅう)銀貨等を収集しています。今後石見銀山を研究する学者と次代の若者へ参考になれば嬉しいです。「石見銀山とその文化的景観」はユネスコの世界遺産として登録されてから5周年を迎え、収集した資料を一冊の本にまとめました。」

短い時間の話であっても、石見銀山地域と大森町の故郷を誇りに思う中村さんの気持ちがよく伝わりました。インタビュー後、お客さんを大切にされる中村社長に昼ご飯をごちそうになった。中村さん、面白いインタビューと美味しい昼ご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みま食武 せんを屋 かを敷

무사의 저택에서 식사해보실래요?

고윤희

나카무라 브레이스를 방문한 후, 나카무라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과 식사를 하러 토츠토즈암(咄々庵)이라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노란색 흙벽에 이 지역 특유의 붉은 기와를 얹은 건물은 언뜻 보기에도 오랜 전통이 느껴졌습니다.

건물은 앞뒤 두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앞쪽 건물은 무려 200년 전에 지어진 무사의 저택이라고 합니다. 이 건물은 국가가 지정한 사적이기 때문에 조리를 위한 화기는 사용할 수 없지만 단채손님을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나중에 지어진 뒤쪽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석에서는 부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부엌은 밥을 짓는 가마솥과 우물이 있어서 옛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튀김 코스를 주문하면 주방장이 눈 앞에서 튀김을 튀기는 모습을 보며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려나온 요리는 제법 소박했습니다. 소바, 네가지 튀김, 닭고기와 무청, 얇게 부친 계란노른자를 얹은 밥, 간단한 반찬 두 가지.

소바는 면이 얇고 색도 얼었습니다. 씹을 때는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물어보니 메밀가루와 밀가루를 섞는 비율에 따라 탄력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반찬은 심심하지만 단맛이 나는 밥과 잘 어울렸습니다.

색이 화려한 일본 전통요리를 생각한 예상과는 어긋났지만 음식 하나하나가 정갈했고 기본이 탄탄한 맛이 났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주방장인 나가오 다이치(長尾多一, 50세) 씨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 Japanese

武家屋敷で食事をしてみませんか?

中村ブレイスを訪問した後、中村社長と関係者の方々とお食事をしに「咄々庵(とつとつあん)」に行きました。黄色い土壁にこの地域特有の石州瓦を葺いた建物はちらっと見るだけでも歴史を感じさせてくれました。

建物は前後の2棟で構成され、前の棟はなんと200年前に建てられた武家屋敷だそうです。この棟は国が指定した史跡なので調理のための火気は使えませんが、団体客をもてなすなどの用途で使われるという説明でした。

私達はまずあとでから建てられた後ろの棟に入りました。座ったカウンター席からは台所が見渡せました。ご飯を炊く釜や井戸などがあり、古風な感じが漂っていました。天ぷらコースを頼めば、料理長が目の前で天ぷらを揚げる姿を見ながら食事ができるそうです。

出てきた料理は結構素朴なものでした。そば、四種類の天ぷら、鶏肉と大根の葉、錦糸卵に乗っているご飯、簡単なおかず2種類。

蕎麦の麺は細く、色は薄かったです。噛むときは歯ごたえがありました。聞いてみたら、蕎麦粉と小麦粉の割合によって弾力と味が変わるそうです。おかずの味は薄かったですが、甘みのあるご飯とバランスよく合いました。



高侖希(コ・ユニ)

色鮮やかな日本料理が出るだろうと思っていた予想は外れましたが、料理一つ一つがさっぱりしていて基本がしっかりした味がしました。いくら食べても飽きない味でした。

食後には料理長の長尾多一さん(ながお・たいち、50歳)と話す機会がありました。

Q.料理を始めたのはいつからですか。

A.17~18歳からです。今50歳なので32年前です。途中抜けたこともあります。両親が共働きで家にいなかったため、その時から作りましたね。咄々庵で働いたのは2012年3月からですから、まだ一年は経っていません。

Q.世界遺産の中で料理するのは他の所で料理するのと何か違いがありますか。

A.特にありません。なぜかという、お客さんは基本的に一緒だという考えで臨んでいるからです。まずは自分でも食べたくなる料理を作り、その上でお客さん



食事を 武家屋敷で



A.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손님은 같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스스로도 먹고 싶어지는 음식을 만들고 그에 더해서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 손님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메뉴는 무엇입니까?

A. 시간이 없는 관광객에게 딱 맞는 도시락 메뉴가 있습니다. 도시락에 들어가는 반찬은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튀김이나 회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와미긴잔 은광에서는 생산된 은으로 타원형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은화를 본따서 만든 도시락을 보여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도 세계유산센터에서 견학을 하거나 팸플릿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도시락을 봤을 때 은화 형태라는 것을 금세 아신다고 합니다.

Q. 요리를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A. 17-18세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50살이니까 32년 전이네요.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진 적도 있긴 합니다만……. 부모님이 맛별이를 하셔서 집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츠토츠암에서 일한 것은 2012년 3월부터이니까 아직 일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Q. 세계유산 안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과 뭔가 차이가 있습니까?



대화를 마친 후, 앞 건물인 무사의 저택을 보러 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일본식 다다미방에는 고타츠가 놓여있고 밖에서 보면 2층 건물로 보일 정도로 천정이 높았습니다. 3월이 되면 계단식 단에 전통인형을 장식하는 히나단이 놓여진다고 하니 일본스러움을 느끼기에 딱 적당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점의 이름인 '토츠토츠'는 감탄한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와'라며 눈이 휘둥그레졌다기보다는 서서히 마음이 흠족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제철 재료나 주방장이 산보 겸 나가서 따온 들꽃로 메뉴의 내용을 바꾼다고 하니 봄이 되면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습니다.

Japanese

의立場から考えようとしています。

Q. 外国人のお客さんに一番お勧めしたいメニューは何ですか。

A. 時間のない観光客にもってこの弁当があります。弁当に入れる品は値段によって変わり、天ぷらや刺身などを追加することもできます。

(昔石見銀山では産出された銀で楕円型の銀貨を作っていました。この銀貨を模した弁当を見せてもらいました。)

外国からのお客さんも世界遺産センターを見学したり、パンフレットを見たりして来られるので、弁当を見た時に銀貨の形であることがすぐに分かるそうです。

話が終わった後、前の棟の武家屋敷を見に行きました。靴を脱いで入る日本間の豊部屋にはこたつが置かれ、外から見ると2階建てにも見えるほど天井は高かったです。3月になると、ひな壇で飾られるというので、日本らしさを感じるのにちょうどいい空間に思えました。

店の名前である「とつとつ」は感嘆した様子を表現する言葉だそうです。しか



し、私には「わ、すごい」と目を見張ったというよりは、この場所で徐々に心が満たされ温まった気がしたのです。季節が変わると、その時に合う旬の食材や料理長が散歩がてら摘んだ野草でメニューの内容が変わるので、春にもう一度訪れたいと思いました。

역사의 기억 -이와미은광의 칸델라

이 흥

오늘날 불빛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전등일 것입니다. 전등이 없던 시대에는 무엇을 사용했었는지 묻는다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보지 취재를 위해 근대 이와미은광에서 조명기구로 사용되었던 칸델라(휴대용 석유등)를 지금도 만들고 있는 가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와미은광은 마쓰에시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오다시 오모리초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모리초를 중심으로 하는 이와미은광은 800여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광산유적으로 1969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세계유산(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 옛날 은광에서 사용되었던 조명기구의 하나가 칸델라였습니다.

오모리초는 조용하고 역사가 있는 마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칸델라는 어떤 모양이며 어떤 곳에서 제작되는지 궁금증을 안고 다케시타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재 다케시타 씨는 일본 칸델라 제작의 일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케시타 씨의 집안은 1887년에 은광 재개발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칸델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칸델라는 은광 개발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변하면서 칸델라를 사용하는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다케시타 가문은 메이지시대부터 칸델라를 만들어온 장인 집안입니다. 칸델라는 기름을 사용하는 등화구(燈火具)의 일종으로 다케시타 씨의 가게에서는 함석으로 칸델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다케시타 씨가 칸델라를 만드는 것은 일이라기 보다는 취미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케시타 요시쓰구(竹下佳嗣, 74세) 씨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와서 칸델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칸델라를 만들어 생활하던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 후, 칸델라 제작이 어려워졌고 칸델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칸델라를 주문했는데 완성된 것은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4년이나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케시타 씨가 만드는 칸델라를 잇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케시타 씨의 집을 나서며 왠지 쓸쓸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전통적인 물건이 우리 곁에서 점점 멀어져서 수 십년이 지난 후에 칸델라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물건인지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전통문화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만일 이와미은광에 가게 된다면 꼭 오모리초의 다케시타 함석점(竹下鐵力店)에 들러서 칸델라 실물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제품을 응원하고 함께 전통문화를 지켜나갑시다.

*칸델라: 휴대용 석유등

다케시타 함석점

시마네현 오다시 오모리초 하 171
전화:0854-89-0544

竹下鐵力店

島根県大田市大森町ハ171
電話:0854-89-0544



Japanese

歴史の記憶 —石見銀山のカンテラ

現在、明かりのイメージはやはり電燈だと言われていると思います。昔、電燈がなかった時代に何が使われていたのかと聞かれるとなかなか答えられない人も少なくないと思います。

今回、情報誌の取材をするために、近代の石見銀山で照明用具として使われていたカンテラを今でも作っているお店に行くことになりました。石見銀山は松江市から車で2時間ぐらいで着く大田市大森町の辺りにあります。大森町を中心する石見銀山は、800年以上前の日本を代表する銀山遺跡と言われ、1969年に日本によつて史跡に指定されました。それから2007年に世界遺産(文化遺産)へ登録されました。昔、銀山で使われた照明用具の一つはカンテラでした。

大森町は、静かで歴史が深い町と感じていたので、日本のカンテラはどんな様子かどんなところで作られるかと思いながら、竹下さんの家に着きました。竹下さんは現在日本でカンテラを作る第一人者と呼ばれています。竹下さんの家は明治20年(1887年)に銀山の再開発が始まった時からカンテラを作っていたと聞きました。その時代に銀山を開発するために、カンテラがよく使われ、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と分かりました。しかし、時代がだんだん変りカンテラを使う時代も終わりました。

竹下さんの家は明治時代からずっとカンテラ作りの職人として存在していま

易紅

す。カンテラは油用灯火具の一種で、竹下さんのお店ではブリキで作られています。

現在、竹下さんはカンテラの作るのは仕事というより趣味という感じがします。竹下佳嗣(たけした よしつぐ)さん(74歳)は、中学時代に、学校から帰宅してカンテラ作りの勉強を始めたそうです。カンテラを作る生活をしてきた今から19年前に体調を崩しました。その後は、カンテラを制作するのが難しくなり、カンテラを作るのに時間がかかったそうです。ある少年がカンテラを注文した時は小学3年生でカンテラが出来上がったのは中学1年生になっていたと聞きました。4年間も待てるということは竹下さんのカンテラのことを忘れられないのだと思います。

竹下さんの家から出ると、少しさびしい感じがしました。伝統的な物が私たちがからだんだん離れて、何十年後、カンテラと聞いてどんな物か皆が分かるかなと思ひながら、伝統文化を守るのは皆の責任だと感じました。

もし、石見銀山に行ったら、ぜひ大森町の竹下鐵力店に行ってみてください。本物のカンテラを見てください。伝統物を応援して、一緒に伝統文化を守りましょう。

A magazine about

Shimane Prefecture, Japan

<http://www.pref.shimane.lg.jp/bunkakokusai/>

시마네 이모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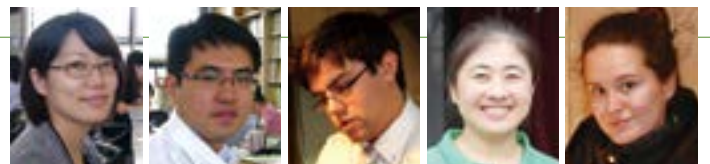
편집자: 고유희

Publisher: 시마네현 환경생활부 문화국제과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쪽으로 연락바랍니다.

1 Tonomachi, Matsue-shi, Shimane-ken 690-8501, JAPAN

発行: 島根県環境生活部文化国際課



Ko Yunhee

Fu Bo

Damien Craig

Yi Hong

Tatyana Krapivina